

다니엘서 - 제136번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예언적 전환: 죽음에서 부활로

Jeff Pippenger

2024-03-14

2020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화주의 뿔과 참된 개신교 뿔, 이 두 뿔 모두에 전환이 시작되었다. 참된 개신교의 뿔은 2020년 7월 18일에 죽음을 당했고, 공화주의 뿔은 2020년 11월 3일에 죽음을 당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따르면, 상징적인 사흘 반이 지난 뒤에 그들은 다시금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들이 설 때, 참된 개신교의 뿔은 라오디게아인에서 빌라델비아인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이끌려 나와, 운동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일곱째 교회의 경험에서 여섯째 교회의 경험으로 옮겨졌다. 그들은 여덟째가 되었는데, 즉 일곱에 속한 자다.

재림주의의 시작은 빌라델비아 운동이었고, 그 빌라델비아 운동은 마지막에 회복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사역은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운동으로 끝날 것이다. 일곱 교회 중 여섯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로 대표되는 빌라델비아 운동은 1856년에 죽었고, 2023년 7월 말부터 이제 여덟째, 곧 그 일곱에 속한 것으로 부활하고 있다.

같은 역사 속에서 공화당의 뿔은, 1989년 종말의 때에 레이건 이후 여섯 번째 대통령이 여덟째(곧 일곱 중에 속한) 대통령이 되는 것과 함께, 병행하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 공화당의 뿔이 전환하는 과정은 그것이 배도한 개신교의 뿔과 합쳐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영적 간음이자 짐승의 우상이다. 공화당의 뿔은 가톨릭의 짐승의 우상, 곧 요한계시록 17장과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일곱 머리 가운데 속한 여덟째 머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덟째, 곧 일곱 중에 속한 자가 된다.

공화주의의 뿔의 정치적 전환은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준비 기간으로 표상된다. 그 예언적 기간은 느부갓네살의 짐승 형상의 숨겨진 비밀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열쇠이다. 그 준비 기간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모두를 위한 30년의 준비 기간으로 표상된다.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임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인침의 때는 모든 이상이 성취되는 예언적 기간이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큰 지진'의 때에,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으로서 교황권이 지상의 보좌로 복귀함으로써 끝나는 기간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것은 538년에 교황권이 처음으로 보좌에 오르기 이전의 기간으로 예표되어 왔다. 538년에 교황권은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여 삼십 년의 준비 기간의 끝을 드러냈고,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였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므로, 교황권이 처음 보좌에 올랐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요일 법령 이전에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기간은 508년, 533년, 538년이라는 이정표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들로 대표된다. 508년에 준비 기간, 즉 교황권의 수립이 시작되었다. 이교 로마의 네 번째 왕국, 곧 용의 권세는 제압되었고, 533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황권이 "교회들의 머리이며 또한 이단자들의 교정자"라고 칙령을 내렸다. 538년에 교황권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해 남아

있던 것은 로마 시에서 고트족을 몰아내는 일뿐이었고, 그 일은 538년에 이루어졌다. 그 30년에 걸친 역사적 흐름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뒤를 이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세례에서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권능을 받으신 사건과 병행하였다.

그리스도의 역사에서의 준비 기간은 인침의 때와 병행하며, 개신교 뿔의 내적 노선을 다룬다. 반면 적그리스도를 위한 준비 기간은 공화주의 뿔의 외적 노선을 다룬다. 그 두 기간은 2001년 9월 11일, 2023년 10월 7일,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에 대한 두 증언을 제시한다. 한 기간은 외적인 증언을, 다른 기간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대한 내적인 증언을 강조한다.

언약의 사자를 위해 길을 예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의 요한의 사역은, 사망의 언약의 사자인 불법의 사람을 위해 길을 예비한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과 병행한다. 2023년 10월 7일은 538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요일 법령이 집행될 때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경고였다. 2023년 10월 7일은 교황권이 처음으로 세상의 왕좌에 앉게 되기 위한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533년과 병행한다. 그것은 임박한 일요일 법령 때, 538년과 같이, 교황이 다시 한 번 교회의 수장이자 이단을 교정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또한 그것은 셋째 화와 관련된 이슬람의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슬람을 지목하는 경고(동방의 소식)이며, 교황권의 회복에 대한 경고(북방의 소식)이다. 그 경고는 마지막 때에 길을 예비하는 사자의 사역과 일치하며, 그 사역은 언약의 사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는 그 후 십사만 사천 명과 언약을 맺게 된다.

준비의 세 기간(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30년, 그리고 인치는 때)은 1776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으로도 예표된다. 땅의 짐승의 종결에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그 종말에 앞서는 특정한 기간이 있으므로,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땅의 짐승의 시작에도 그 왕국의 시작에 앞서는 예언적 기간이 있어야 한다. 알파와 오메가는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과 함께 나타낸다.

1776년, 1789년, 1798년은 각각 2001년 9월 11일, 2023년 10월 7일, 그리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을 나타낸다. 1776년부터 1798년까지 여섯째 왕국의 수립을 위한 예언적 준비가 이루어졌고, 이는 508년, 533년, 538년이 다섯째 왕국의 수립을 위한 준비를 나타냈던 것과 같다. 여섯째 왕국이 다섯째 왕국의 형상이 될 것이므로, 이들은 동일한 예언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의 침례에 이르기까지의 그리스도의 30년간의 준비는 같은 기간을 표상한다. 이는 그분의 침례로 시작하여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하시러 오셨을 때, 그분이 은혜의 나라를 세우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일곱 해 동안 은혜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에서 그분은 그 나라를 확증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장차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대한 본을 남기셨다. 그 영광의 나라는 다니엘 2장의 나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떠낸 돌로 표상되어 있다. 그 나라가 늦은 비 때에 세워진다고 화이트 자매는 우리에게 알려 주며, 늦은 비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다.

“늦은 비는 순결한 자들에게 내리고 있다—그때에는 모두가 이전과 같이 그것을 받을 것이다.

“네 천사가 놓아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후자의 비를 받는 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모두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온 하늘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Spalding and Magan, 3.

2001년 9월 11일, 성난 말(이슬람)로 상징되는 네 바람이 풀려났다가,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동안 억제되었다. 1776년, 1789년, 1798년은 14만 4천의 인침 기간을 나타내며, 이 세 날짜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수립되게 한 법적 제정들을 가리킨다. 둘째 날짜인 1789년은 미합중국 헌법을 가리키며, 그러므로 그것은 헌법을 1798년에 도래할 이중 권세로 식별하게 한 메시지였다. 이는 533년이 538년에 도래할 이중 권세를 알리는 선포였던 것과 같고, 또한 세레 요한이 그리스도의 세레 때 도래할 이중 권세를 선포했던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이중 권세를 구성하는 두 권세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신 그의 모범이었다. 적그리스도의 이중 권세를 구성하는 두 권세는 교회들의 머리로서의 즉위와 이단자들의 교정자로서의 즉위였다. 땅의 짐승의 이중 권세를 구성하는 두 권세는 공화주의와 개신교라는 두 뿔이다.

“그는 어린양 같은 두 뿔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양 같은 뿔은 젊음과 순수함, 온유함을 가리키며, 1798년에 예언자에게 ‘coming up’이라고 제시되었을 때의 미국의 성격을 적절하게 대변한다. 처음 미국으로 도피하여 왕권의 압제와 성직자적 불관용으로부터 피난처를 구했던 그리스도인 망명자들 가운데에는,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라는 넓은 토대 위에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위대한 진리를 천명한 독립선언서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기 통치의 권리를 보장했다.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어, 각 사람이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는 이 나라의 근본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원리들이 그 힘과 번영의 비결이다.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의 억압받고 짓밟힌 이들은 관심과 희망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았다. 수백만 명이 그 해안을 찾아왔고, 미국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대한 논쟁, 441.

1776년, 1789년, 1798년은 여덟째가 일곱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세 가지 역사를 나타낸다. 1776년은 독립선언서의 공포와 제1차 및 제2차 대륙회의의 역사를 나타낸다. 1789년은 헌법의 공포와 연합 규약의 역사를 나타낸다. 1798년은 외국인 및 선동법의 공포와 성경 예언에서 여섯째 왕국인 땅의 짐승의 시작을 나타낸다.

제1차 대륙회의는 1774년에 열렸으며, 미국 초기 역사에서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미국 독립전쟁 동안 통치 기구 역할을 했다. 대륙회의는 첫 의회와 마지막 의회라는 두 예언적 시기로 구분된다. 제1차 대륙회의는 두 명의 의장을 두었으며, 1774년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었다. 페이턴 랜돌프가 9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회의의 초대 의장을 맡았고, 이어 헨리 미들턴이 다음 5일 동안 1774년 10월 26일까지 의장을 맡았다.

제2차 대륙회의는 1775년부터 1781년까지 열렸다. 제2차 대륙회의는 활동 기간 동안 여섯 명의 의장이 있었다. 페이턴 랜돌프는 1775년 5월 10일부터 1775년 5월 24일까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 모두의 초대 의장이었다.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의장은 모두 여덟 명이었다.

제2차 대륙회의의 두 번째 의장은 존 핸콕이었고, 핸콕은 1775년 5월 24일부터 1777년 10월 31일까지 의장을 맡았다. 헨리 로런스는 1777년 11월 1일부터 1778년 12월 9일까지 의장을 맡았다. 존 제이는 1778년 12월 10일부터 1779년 9월 28일까지 의장을 맡았다. 사무엘 헌팅턴은 1779년 9월 28일부터 1781년 7월 9일까지 의장을 맡았다. 토머스 맥킨은 1781년 7월 10일부터 1781년 11월 4일까지 의장을 맡았다.

페이턴 랜돌프는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에서 모두 초대 의장을 지냈다. 이는 대륙회의의 두 시기 동안 의장이 여덟 명 있었지만, 각 시기의 초대 의장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의장 임기는 여덟 번이었지만, 실제 의장은 일곱 명뿐이었다. 초대 의장은 의장을 지낸 일곱 남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랜돌프가 그 역사에서 두 차례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일곱 남성 가운데 한 사람인 그가 여덟 번째에 해당하기도 한다.

대륙회의의 역사에서 혁명전쟁의 수행은 의회가 주도했다.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은 그 시기에는 대통령을 지내지 않았는데, 그는 군을 지휘하는 초대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두 시기 모두에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랜돌프는 실제의 첫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예표하는 두 증인을 대표한다. 워싱턴은 랜돌프에 의해 대표되며, 따라서 워싱턴의 상징으로서의 랜돌프는 초대 대통령 랜돌프의 예언적 특성뿐 아니라 랜돌프가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다는 점까지도 전달한다. 따라서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이자 초대 최고사령관으로서, 예언적으로도 여덟째였고 일곱에 속한 자였다.

예수님은 어떤 일의 끝을 시작을 통해 보여 주시므로, 마지막 대통령이자 최고사령관은 여덟째가 될 것인데, 곧 그 일곱에 속한 자다. 이 예언적 사실은 1776년이라는 첫 이정표와 독립선언문 공표로 상징되는 제1차와 제2차 대륙회의의 역사 속에서 확증된다.

1776년의 이정표는 2001년 9월 11일과 애국법을 예표하는데, 그때 미국의 독립은 더 이상 영국법 아래가 아니라 로마법의 권위 아래에 종속되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 때 교황권이 다시금 지상의 왕좌를 차지하도록 길을 예비하는 예언적 기간의 시작을 표시한다.

1776으로 대표되는 예언적 시기와 마찬가지로, 1781년 제2차 대륙회의의 종결부터 1789년에 이르는 역사도 예언적 시기를 이룬다. 1789년은 헌법 공포와 관련된 이정표를 가리키는 날짜다. 그 역사에는 여덟 명의 대통령도 있었다. 1781년부터 1789년까지의 역사는 연합규약의 역사다. 연합규약은 최초의 헌법에 해당했지만, 그 취약성 때문에 대체되었고 1789년에 헌법이 비준되었다.

그 시기의 여덟 명의 의장은, 두 차례 대륙회의의 역사에서 의장을 지내지 않았던 일곱 명과, 그 최초의 예언적 시기에도 의장이었던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존 행콕은 제2차 대륙회의에서도, 또한 연합규약으로 대표되는 시기에도 의장으로 재임했다. 예언적 차원에서 보면, 두 차례 대륙회의 동안 의장을 지낸 남자는 일곱 명뿐이었으므로, 예언적으로 존 행콕은 연합규약 시기의 여덟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앞선 시기의 그 일곱 명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그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였다.

1789로 대표되는 두 번째 예언적 시기에도 여덟째이되 일곱 중 하나였던 대통령(한콕)이 있었는데, 이는 1776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예언적 시기의 페이턴 랜돌프와 마찬가지로였다. 1789는 2021년 1월 6일의 펠로시 재판과 상응하며 그것을 대표한다.

주께서는 시온의 성벽 위에 신실한 파수꾼들을 세우셔서, 크게 외치되 아끼지 않고, 나팔 소리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범과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게 하셨다. 주께서는 진리의 원수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반대하여 결연한 공세를 펼치도록 허락하셨다. 그분은 이 수단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시험이 되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려 하신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길을 열 것이다.

진리를 믿는 자는 지금 침묵하지 말라. 지금은 아무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요한복음 14:13)라는 약속을 붙들고 간청하라. 지금은 위태로운 때다. 자유를 자랑하던 이 땅이 그 헌법을 이루는 모든 원칙을 희생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며, 교황권의 허위와 미혹을 강요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려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믿음으로 그들의 간구를 아뢰어야 한다.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모든 격려가 있다. 개인적인 위험과 곤경에 처하게 될 전망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기력과 소망을 북돋워야 한다. 이는 그들의 위기의 때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더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억압과 환난을 그저 평온히 기다리며 두 손 놓고, 그 악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연합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또 일하고 기도하라. 그러나 아무도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함을 배우라. 개인이든 교회가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욕적인 비난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라. 때로는 날카로운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지 확실히 하라. 그때에는 그 진리가 스스로 길을 베풀어 나가게 하라. 베풀어내는 일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선택된 기별 2권, 370쪽.

헌법으로 표상된 예언적 준비 기간의 두 번째 이정표는 다음 이정표에서 헌법이 전복될 것임을 가리킨다. 그 두 번째 이정표는 세레 요한에 의해, 또한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에 의해서도 예표되었는데, 이 둘은 모두 그 기간에 표상된 마지막 사건의 도래와 관련하여 이를 밝히고 경고를 제시하였다. 요한의 경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생명의 언약을 확증하시며 권능을 받으신 일이었고, 유스티니아누스의 경우, 그것은 순교자들의 피로 사망의 언약을 비준할 자인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이 부여되는 일이었다.

1789년의 헌법은 땅의 짐승의 두 뿔에 권세가 부여되는 것을 지목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법으로 대표되는, 땅의 짐승의 두 뿔의 권세가 머지않아 파괴될 것임을 지목했다. 두 증인이 2020년에 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2021년 1월 6일의 펠로시 재판들로 상징되는 헌법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지목하고 경고했다.

2021년 1월 6일은, 533년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이 예표한 바와 같이,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 교황권에 권세가 부여되는 것에 대한 경고이다. 2021년 1월 6일과 533년은 모두, 538년 오를레앙 공의회에서의 일요일 법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1798년의 외국인 및 선동죄법이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것을 예표했듯이, 곧 다가올 일요일 법을 경고한다.

일요일 법령 때에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여덟째 머리, 곧 일곱 머리에 속한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1798년의 외국인법과 치안법은 땅의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태양 숭배를 강요할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의 짐승의 권위를, 일곱에 속한 여덟째 머리로서 받아들일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776년, 1789년, 1798년으로 표시되는 준비 기간의 세 시기 각각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라는 예언적 수수께끼가 예표되어 있다.

그 수수께끼를 식별하는 첫 두 이정표(1776년과 1789년)는 땅의 짐승의 예언적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그 수수께끼를 다루며, 세 번째 이정표는 교황권과 관련하여 성취되고 있는 그 수수께끼를 식별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말하며.' 여기에는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는 형태의 정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은 예언이 가리키는 나라가 미국임을 보여 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증거이다.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우상은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 만들어지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우상이다. 또한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그 우상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들을 연구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성에서 이탈하여 이방의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잃었고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지원을 구했다. 그 결과가 바로 교황권이었다. 교황권은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 특히 '이단'을 처벌하는 데 사용했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권세가 세속 정부를 그렇게 통제하여 국가의 권위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손에 넣을 때마다, 교회는 그 권력을 자신의 교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해 왔다. 세속 권력과 동맹을 맺어 로마의 전철을 따른 개신교 교회들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비슷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한 예는 영국 국교회가 비국교도들을 오랫동안 박해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수천 명의 비국교도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교회에서 도피하도록 강요받았고, 목회자와 신자들 모두 가운데 많은 이들이 벌금형, 투옥, 고문을 당했으며 순교하기도 했다.

초기 교회가 세속 정부의 도움을 구하게 된 것은 바로 배도 때문이었고, 이것이 교황권, 곧 짐승의 출현을 위한 길을 예비했다. 바울은 말했다. "배도가 오고 ... 또 죄의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3. 그러므로 교회 안의 배도는 짐승의 형상을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다.

성경은 주의 오심 이전에 처음 몇 세기 때와 비슷한 종교적 타락의 상태가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말세에 험한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스러우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를 깨뜨리며, 무고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자요, 경솔하며, 자고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1-5.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미혹하는 영들과 악마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 디모데전서 4:1.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은 '거짓을 믿게 하려는 강한 미혹'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질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9-11. 이러한 불경건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처음 몇 세기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위대한 논쟁, 443, 444.